

9월의 계란전망

강재명
분회 지도조사과장

“호황세 하순 이후 한풀 꺾인후 10월 하락세 전망”

□개학과 추석이라는 수요기를 맞아 무섭게 계란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특란 80원대를 향해 줄기차게 오르고 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문구가 문득 생각난다. 너무 빨리 오르지 않나하는 걱정도 된다.

최근의 계란값 상승은 하절기의 소비부진으로 인한 가격하락의 후유증, 늘더위의 지속으로 인한 생산성하락, 추석 등 수요기를 앞둔 가수요 발생으로 인하여 생산감소 추세와 수요증가가 맞물려 나타났다. 향후 이런 원인이 서서히 없어질 때 계란값은 회복되리라 여겨지므로 무리한 과욕을 부리면서 생

산하는 자세는 버리고 서서히 노계도태쪽으로 방향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7월 산란용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보면 초생추사료가 5.051 M/T으로 전월에 비해 감소추세로 나타났으니 감소폭이 예년에 비해 근소하고 전년도동월에 비해서는 20% 정도 증가했다. 이는 병아리 생산증가를 예고해 주고 있다.

육추사료는 28,870 M/T으로 예년의 경우와는 달리 증가세로 이는 작년 연말 이후 계속된 병아리 생산의 증가가 지속된데 기인한것 같다. 향후 계란 생산 증가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산란사료는 109,040 M/T으로 전년도나 지난달에 비해 감소하여 하절기 계란값이 예년에 비해 큰 불황없이 지나가지 않았나 여겨진다.

□8월 중순 이후 급반등세를 보여 계란값은 9월 중순을 기점으로 추석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보합세 내지 약세권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는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 생산성이 회복되고 계란값 호황으로 인한 노계도태물량 감소와 신계에서의 생산 등 전반적인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추석 이후 소비가 급격히 감소가 예상되므로 70원대의 특란시세 유지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9월 하순경이 노계도태의 적기로 여겨진다. 10월은 인상분 만큼 내릴 정도로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들어 계속 병아리값의 호황으로 인해 병아리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가을추 이후의 입추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 종계 및 실용계 병아리 입식수수

(단위 : 천수)

구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종 계 입식수수	88	52.0	21.5	16.1	27.9	65.6	38.4	8.3	41.9	2.9	24.0	49.4	55.6	403.6
	89	84.9	40.1	23.5	41.6	56.1	28.4	24.0	14.8	67.5	45.3	40.6	33.2	499.9
	90	25.8	42.2	32.6	20.1	38.3	111.8	18.0						
실용계	88	1,742	2,205	2,428	2,365	1,790	1,283	1,335	1,420	1,695	1,743	1,402	1,185	20,593
	89	1,355	2,569	2,683	2,420	2,562	2,352	1,925	2,237	2,197	1,959	1,806	1,904	25,969
	90	1,970	1,959	2,302		2,229	2,229	2,405						

그림 1. 대란고시가격 (개당)



그림 2. 배합사료 생산실적

